

2026. 02. 26. 13:53

일기를 쓰다말다 많이 했네요. 어제는 그저께 당직하고 오프였습니다. 하루종일 잤어요. 아무래도 피로가 쌓였나 봅니다. 아니면 약 때문인지. 아무튼 방바닥에서 계속 자다가 새벽에 출근한 후 또 졸았습니다. 뭐 저는 평소에 거의 잠을 자지 않으니 좋은일 같습니다. 자고나면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거든요. 물론 너무 오래자면 시간이 아깝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아마추어 무선은 현재 정체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장비를 가늠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절약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인 결론은 BKII 이라는 마운트와 IC-9700 입니다. 리니어 앰프를 태워먹은 문제도 있고 그냥 제대로 된 장비 하나만 사서 끝을 내고 싶거든요. 거기다 의외로 직장에 설치한 장비는 잘 쓰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고 철거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이번 증권가에 퍼진 AI 공포론을 이용해 추가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것은 IBM 이네요. MSFT도 더 사고 싶지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JPST로 딱 \$3,000 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까 생각 중입니다. 실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조금 이르게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다만 그럼에도 뭔가 사고 싶다면 차라리 IBM을 더 사야겠습니다.

다음달부터 투자자금은 전량 JPST나 사야겠습니다. 약 10개월간 실탄적재나 하며 추이를 보고 싶네요. 트럼프의 레임덕은 연말부터 심화할 것 같으니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여름에는 과매수된 LNG 관련 주식을 정리하고요.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의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2월 23일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선물을 거절해서 그냥 100만원을 선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008년 2월 23일에 결혼해 벌써 18년차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내덕에 지금까지 무난히 보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내가 딸아이를 잘 챙겨줘서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랑 성격이 비슷한 아이라 키우기 까다로울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이 되면 둘다 처가집으로 떠나네요. 또 혼자 지내겠군요. 스스로 몸 관리 신경써야겠습

